

백두산총대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을 만방에 떨치자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레식 진행



【평양 4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의 선군명도마라 백두산총대를 역세게 끌어올리고 동방의 핵강국, 군사대국의 위용을 과시하며 태양의 위업을 굳건히 받들어나가고있는 선군장병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데를 이어 수병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최대의 애국유신인 내 나라, 내 조국을 무적의 군력으로 수호하며 온 세상에 빛내여갈 철칙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충정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레식이 10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대한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불타는 그라운드와 다함없는 경모의 장에 휩싸여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광장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만세!》 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전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기발게양대들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뭇기고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그 광장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 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정렬한 인민군장병들과 각급 군사학교, 혁명학원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념원인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역사적인 위업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마라 총정대해 받들어갈 억센 기상을 나타내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인민무력상인 북군대장 박영식동지를 비롯한 인민군지휘원들이 레식에 참가하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세!》의 노래주악이 울려 퍼지는 속에 조선인민군군악대의 레식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진제 참가자들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21박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정을 맹세하는 연설을 황병서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5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충정과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삼가 드려왔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한세대대 가장 약한 두 세계주의를 타승하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였으며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선군혁명의 험난한 길을 헤쳐오시면서 사회주의수호전, 만민대결전에서 만전만승을 이룩하시고 끝없는 애국헌신으로 후손만대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민토대를 마련하시는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만고의 혁명업적은 조국정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명도마라 최후승리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의 맹세를 다음과 같이 격려했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성이 있고 선군혁명의 승리가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하늘땅이 얼떨떨이 뒤집히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불어쳐와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최고사령관동지를 굳게 믿고 따르며 천지간검의 천연오새가 되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사수하겠습니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끌어올리고 당이 제시한 5대전략적목표와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전례대로 다져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명군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필수5대교양공새건을 힘있게 벌려 전군을 당의 유일신상으로 일체화되고 불굴의 신념과 도덕의 미로 굳게 뭉친 전위대로 만들겠습니다.

당의 혼련혁명 5대방침을 중시교리, 중자로 끌어올리고 백두산헌원정신을 세차게

일으켜 올례를 또다시 혼련의 해, 싸움은 비관성의 해로 정해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혼련하고 또 혼련하여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할 실전능력을 소유한 일당백의 만능사용군, 백두산호령이 불로 역세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강력세일주의를 높이 들고 싸움준비와 군인생활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며 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주요전구들마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신화, 새로운 기적들을 편이여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냈습니다.

당건설의 총요선이며 군력강화의 만능의 보검인 오종총7면대정호정호총과 군위부대총을 더욱 활력있게 벌려 모든 부대들을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항일의 7면대, 진화의 군위부대로 만들어 군사정치사명에서 끊임없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나가겠습니다.

남강도 미제가 우리의 정정당당한 혁명적호위를 걸고들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에 악랄한 핵전략자산들과 《특수작전》 병력을 총투입하여 핵전쟁도발에 미쳐 남뛰고있지만 백두명장들의 손길아래 장성강화된 일당백혁명무력을 절대로 놀려올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체적인 전쟁관과 무철한 주적관을 버속없이 쫓아내고 미제와 남조선의 괴적적대담의 존용을 날카롭게 주시하며 만약 그들이 끝끝내 침략전쟁의 불길들 러뜨

러려 한다면 강력한 핵선제공격과 만개같은 공격작전으로 침략의 무리를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높이 모신 조국통일혁명광장에 보부당당히 불어설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태양기가 전투에 휘날리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가 있기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혁명장군은 오늘날도 매일도 영원히 뚝뚝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조국의 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하여 필승의 신심드들이 총돌격함으로써 선군혁명의 주력군, 제1군사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는것을 대양의 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다시 한번 굳게 맹세합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위대한 김정일동지 만세!》, 《위대한 김정은동지 만세!》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등 신념의 구호들을 우렁차게 외쳤다.

이와 광장에서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과 각급 군사학교, 혁명학원 학생들의 불연성진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기를 우러러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강대성의 상징이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승리의 기치인 최고사령관기를 휘날리며 위풍당당하게 발걸음도 드높이 전진하는 대오마디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 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분바로 나아갈 백두산혁명장군의 철의 의지가 새겨져 역동했다.

레식은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백두의 대업을 승리의 환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이하는 인민군장병들의 환희와 격정의 본색인양 장대한 경축의 축도성이 태양성지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레식은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억념드높지 않는 초석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태양조선의 천만년미래를 백두산총대로 빛내어나갈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표시하였다.



